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본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김광순*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과 사상을 개혁주의세계관의 관점으로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형성의 배경이 되는 17세기의 시대적배경과 학문적, 신앙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세계관과 그중의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을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평가하였다.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인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창조세계의 질서와 법칙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경의 기능과 권위에 대한 그의 주장들도 개혁주의 세계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코메니우스의 자연관은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스도중심의 우주적 회복과 통일성에 있어서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자연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근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 타락, 구속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종교적인 존재, 관계적 존재, 통전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코메니우스는 그의 교육론인 범지학과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가 개혁되어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사회개혁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코메니우스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자연사상과 인간교육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변혁하려 하였던 교육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개혁주의, 세계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과 사상

* 대신대학교 외래교수

2014년 5월 13일 접수, 5월 26일 최종수정, 6월 18일 게재확정

I. 서론

해방 이후 우리사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낸 현대국가로의 변화는 급격한 세계관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또한 민족주의,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거대한 근대 및 현대의 세계관의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자본주의적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21세기에는 서구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도적인 세계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그동안 전통적 세계관, 근대적 정치이념의 세계관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직면하면서 기독교세계관의 확립, 기독교세계관에서의 수정과 보완을 시도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직면하여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신앙의 확립이라는 방어적인 과제와 더불어, 맹목적인 보수성과 폐쇄성을 넘어 개혁주의적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세계이해, 인간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적극적인 과제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신앙교육차원에서 교회주일학교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신앙교육을 시도하였고, 기독교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소개하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독교교육 분야에서는 인본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이어지고, 특히 입시중심의 경쟁적 학교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개혁주의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혁주의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개혁주의세계관 즉, 성경적세계관에 의한 교육은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된 특권이며 권위와 함께 주어진 임무인 동시에 소명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조기에 교육할 것을 주장한 최초의 학자는 코메니우스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메니우스에 대한 연구는 이숙중, 정일웅 등에 의해 지난 10여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코메니우스는 교육역사와 교육학에서 그동안 현대교육의 창시자로 알려져 왔다. 그의 유작 「인간세계개선에 관한 일반담론」(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io Catholica)이 발견된 이후(Sadler, 1873: 18), 코메니우스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일반교육에 대한 관심에 더하여 그의 신학사상도 주목받게 됨으로써 코메니우스를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한 교육론을 펼친 교육학자로 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¹⁾에서는 먼저 세계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코메니우스 교육철학이론의 기초인 세계관과 그중의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에 주목하고, 이를 개혁주의 세계관적 관점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을 개혁주의 세계관적 관점의 교육론에 적용하는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II. 코메니우스 세계관형성의 배경

한 개인의 세계관과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시대와 사상적, 학문적, 신앙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요소들은 17세기의 시대와 사상적 배경과, 가정과 신앙적 배경, 학문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코메니우스가 살았던 시대는 스콜라철학의 영향으로 이성이 강조되고, 문예부흥의 영향으로 인간성이 강조되며, 종교 개혁과 새로운 과학혁명의 발흥으로 혼돈을 경험한 시대였다. 그가 살았던 17세기의 시대적배경의 특징은 세계관, 인식론, 종교적인 혼돈이 극에 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구사상과 신사상의 혼돈과 가치의 혼재 속에서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신앙을 철학적 이론과 구조로 체계화하려는 스콜라사상은(Ulich, 1968, 70). 이성이 계시와 동일한 권위를 갖도록 하였고, 헬라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였다(Eavey, 1964: 156). 에리게나(Erigena)는 철학을 수단으로 하여 교회의 참된 교리를 이해하려 하였고, 교부들도 계시된 진리와 인간의 이성을 혼합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자신의 신학 구조를 취하였고(Wiley, 1942: 16),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교회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아퀴나스이후 스콜라사상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던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70-1308)가 나서서 신앙과 이성분리되어야 하며, 절대 진리는 신앙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이란 인간의 이성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코투스를 이어 윌리엄 옥캄(William

1)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와 대신대학교 신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목회신학원에서 강의한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Occam, 1300-1349)은 신학의 교리는 오직 신앙에 의하여 전수되어야 하고, 이성 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며 참된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말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독교신앙을 인간 이성과 철학적 이론과 구조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종교개혁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하였다.

교회가 진리와 이성의 혼합으로 인한 혼돈 가운데 처하자 사람들은 중세의 종교적 인 전통과, 금욕적 생활과,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심미적 속성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할 때에 인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문예부흥은 인간중심의 고대사상의 재생부흥 운동이었으며, 고전문학과 예술로 돌아가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물에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중심의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Ulich, 1968: 94).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운동의 발생은 중세교회의 올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세교회의 문제점을 든다면 일반대중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직자들은 사변적인 논쟁에 휩싸여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중세 말엽까지 전문적인 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다. 일반대중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 대부분도 그들이 드리는 기도나 예배의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교회의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미신이 성직자 간에도 만연되어 성자숭배, 성물숭배, 유물숭배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교육이 일반대중에게 미치지 못하였을 때 교회 자체의 통치와 예배에도 이방인들의 유해한 풍습이 침투되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단순한 예배가 아닌, 다신교적 방향으로 타락하게된 것이다(권경호, 2007: 69-98).

중세말기의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 혹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길로 나아갔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른 생활을 실천한 앞선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집단 중에 종교적 생활과 교육에 있어 뛰어난 집단은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과 세속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알프스산 계곡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수 세기 동안 조용한 저항을 계속하며 말씀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왈도파(Waldenses)가 있다. 이들은 복음의 순수한 교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지만 존속되었고, 바른 예배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은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였고 박해로 인하여 분산되었으나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

나 부모와 교사에 의한 교육이 수행되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으며, 성경진리를 규칙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였다. 이들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위클리프(Wycliffe)와 후스(Hus)에게 전승되었다. 그들은 어떠한 환경변화에서도 성경을 불변의 진리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성경에 조예가 깊었고, 인간의 어떤 전통들보다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전 생애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바쳐졌다. 16세기에 이르러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종교개혁(Reformation)운동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도전으로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자로서 기독교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존 칼빈(John Calvin)의 개혁운동은 이러한 흐름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며, 주된 규범으로서의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17세기에 등장하는 코메니우스는 앞서 언급된 이러한 종교개혁의 배경에서 후스파를 계승한 모라비안파(the Moravians)의 지도자였다. 그는 성경에 가장 근본적인 관심을 두고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김기숙, 2004: 16).

스콜라사상, 문예부흥, 종교개혁과 함께 코메니우스가 활동한 17세기에는 놀라운 과학운동이 이어졌다.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과학이론의 중심이 된 태양중심설은 중전의 천체 이론과 전통을 변화시키며,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사상의 확산으로 형이상학에서 자연중심의 물리학으로, 존재의 명상에서 존재의 관찰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그들은 과학을 통해 우주에 관한 지식을 얻고 같은 방법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적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을 권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과학과 인간 이성을 앉혔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은 신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립 자존적 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ire, 1995: 60). 새로운 과학사상은 중세의 문화와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인간의 정신세계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새로운 문화와 종교적 관행과 제도의 재편을 가져왔고 정치사회 제도의 대변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세인의 사고 유형과 지식세계에서 탈피하여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토대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며, 검증하고, 실험하는, 사물 중심적 경험주의사상과 합리적사고 유형의 발전이었다(이숙중, 1999: 27). 이와 같이 인간의 경험과 관찰,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세계를 극복하고 인간생활의 실제적인 향상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편승하여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과학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전지전능한 과학이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중세 문화에서 현대과학으로 이행되는 전환기적인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Sadler, 1873: 19).

17세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1592년 3월 28일 보헤미아의 모라비아 우헤르스키(Uhersky)지역에서 출생한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는 보헤미아 형제단에 의하여 특별한 민족과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Laurie, 1895: 19). 코메니우스는 1647년 8월 22일 요한 발렌틴 안드레아(Johann Valentin Andreae, 1586-1654)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은 존 후스의 교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헤미아 형제단 출신임을 강조하였다. 이 형제단 교회의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와 칼빈보다 100년이나 더 앞선다(최진경, 2007: 91). 보헤미아 형제단 교회(Unitas Fratrum)의 교회개혁은 교회와 기독교적 삶의 최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을 강조함으로써 보헤미아 백성에게 개혁정신을 싹트게 한 후스의 교회 개혁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이숙중, 1999: 85). 개혁사상과 신앙으로 그 당시 카톨릭교회 지지자들에 의해서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The Council of Constance)의 결정에 따라 이단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으로 순교한 후스는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수호자였다. 복음의 진리를 위한 그의 용기 있는 투쟁과 희생적인 죽음은 100년 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후스에게 가한 부당한 재판과 화형에 대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분노하였다. 그 결과 후스의 이름을 딴 ‘후스 운동’이라고 불리는 교회 개혁운동이 체코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후스를 추종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났다. 후스의 교회개혁의 취지는 보헤미아 형제단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1467년 보헤미아 형제단교회의 창설자 그레고아(Gregor)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사는 형제단 교인들을 소집하여 총회를 열고 형제단 교회의 첫 성직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황제 페르디난드 2세(Kaiser Ferdinand II, 1578-1637)는 강한 반종교개혁 정책을 펴고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있던 모든 개신교도들은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다. 체코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고향과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이때 대부분의 보헤미아-모라비아 형제단 교인들은 폴란드의 한 도시 레슈노(Leszno)로 이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코메니우스도 함께 있었다. 형제단 교인들은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

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Westfaelischer Friedensvertrag)은 신앙의 자유와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서는 두 개의 큰 개신교 종파인 루터파와 칼빈파만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았다(최진경, 2007: 118). 따라서 형제단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메니우스는 형제단 교회의 감독(Bishop)으로 선출되었다(Laurie, 1895: 35). 코메니우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후스의 개혁사상에 뿌리를 둔 형제단 교회는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서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다. 보헤미아 형제단 교회의 신학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출발하였고, 성경은 그들의 신학의 주요 원천이었다. 후스의 개혁사상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후스의 외침은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 라는 구호 하에 일어난 16세기 종교개혁 속에서 다시 반영되었다. 형제단 교회는 루터신학보다 칼빈주의 사상이 형제단 교회의 교리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칼빈의 신학사상과 형제단 교리중 성찬의 교리와 훈육의 엄격성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사수한 후스의 개혁사상에 뿌리를 둔 보헤미아 형제단 교회의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중심사상이 코메니우스의 세계관형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학자들에게 있어서 학문적 배경은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세계관과 신앙관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코메니우스는 1603년부터 1608년까지 스트라츠니체(Straznice)에 있는 형제단 공동체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기초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Sadler, 1969: 1). 이 학교는 지성적인 훈련과 함께 엄격한 경건훈련과 도덕적인 훈련을 시켰으며,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들에게 상호 책임성과 자기향상과 보편적 성직(Universal Priesthood)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1608년에서 1611년 코메니우스는 보헤미아 형제단이 운영하는 프레라우(Prerov)문법학교에 진학하였고, 1611년부터 1613년에 그는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던 헤어보른(Herborn)의 낮소 아카데미(Nassau Academy)에 입학하여 신학과 철학을 배웠다. 그곳에서 저명한 교수인 요한 H. 알슈테트(Johann Heinrich Alsted)에게서 영향을 받아 모든 학문의 종합인 범지학(汎知學) 사상을 발견하게 되었다(Comenius, 1910: 4). 헤어보른의 알슈테트교수는 백과전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메니우스는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고, 이때부터 모든 학문을

종합하는 백과전서적인 사고에 몰두하게 되었다. 1613년 코메니우스는 개혁교회의 학문 중심지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데이비드 파레우스(David Pareus, 1548-1622)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칼빈주의의 전통을 따르던 헤어보른 아카데미에서와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신학과 철학수업,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 등의 영향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I.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요소들은 17세기 시대의 사상적 배경과, 특히 보헤미아 형제단의 영향과, 헤어보른 아카데미와 하이델베르크의 칼빈주의 교육기관에서의 학문적 배경에 의한 것들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칼빈주의의 전통을 따르던 헤어보른 아카데미에서와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신학과 철학수업,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 등의 영향은 코메니우스의 세계관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실된 그의 원고 범교육학의 발견으로 코메니우스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세계관에 의한 인간교육을 제시한 교육신학자인 것이 밝혀지고 있다(정일웅, 2005: 5). 코메니우스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일된 시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였다(Comenius, 1996: 187).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이해하였다(Comenius, 1910: 11-13).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Comenius, 1999: 62) 설계하시고(Comenius, 1910: 25), 무에서(Comenius, 2005: 141) 다양한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Comenius, 1910: 25), 법과 질서로 창조하신(Comenius, 1910: 93)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가장 작은 세부적인 것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리고 천체도 창조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놀라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질서가 없어지면 혼돈과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코메니우스는 단언한다(Comenius, 1910: 93).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와 선하심과 무한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인간을 영원의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존재,

생명력, 감각을 각기 하나씩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이성과 함께 한꺼번에 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대리인으로 다스리도록 소명을 주셨다(Comenius, 1910: 25).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은 완전한 지혜의 작품이며, 최상의 걸작품은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Comenius, 1984: 63)이며, 인간은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었다. 지혜와 질서의 하나님은 낙원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고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면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최초의 여인 하와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시작되었고, 낙원의 상실과 고난과 죽음이 초래되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이 영육 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낙원의 풍성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상실로 범죄하여 낙원을 상실하였고(Comenius, 1910: 12), 하와가 뱀과의 대화에서 속임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사물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뱀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최초의 범죄유혹에 넘어갔다고 표현한다(Comenius, 1910: 54). 만약 인간이 창조주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면 인간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무능력해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Comenius, 2005: 34).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생긴 타락의 본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에 정치해주신 자리에서 떠나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영원에 대한 준비나 인간운명에 대한 망각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거룩한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셨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믿었다(Comenius, 1887: 44).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성육신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성육신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본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 것이다(Comenius, 2002: 74). 코메니우스는 인간이 부패의 상태에서 개혁의 노력이 없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의 증거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 아담이 인간 속에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만 보고 새 아담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Comenius, 1910: 50). 그래서 그는 인간은 죄악에 빠져 타락하였으나 최초의 상태를 회복해야하며, 원형상인 하나님을 닮으려

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장 난 시계를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죄에 빠져 타락하였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며, 생명나무에 새롭게 접목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택한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고 안전한 더 나은 낙원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특히 땅에 있는 교회의 낙원을 새롭게 하시고 광야를 기쁨의 낙원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메니우스는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인 관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였다(Comenius, 1999: 49).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1. 코메니우스의 자연관

코메니우스는 과학적 통찰력에 의한 자연세계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연구이며, 하나님의 현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Comenius, 1999: 13).

코메니우스는 자연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하나님의 책으로 보고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 속에 있는 학교로 보았다. 그는 자연에서 교육의 방법을 유추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관에 의해 코메니우스의 새 교수법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이며 하나님의 교육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학교가 된다. 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자연은 계시가 드러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책이다(Comenius, 1999: 5-7).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그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책인 성경과 자연을 주의 깊게 탐독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창조의 숨겨진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는 또 다른 창조인 성경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자연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를 해석한다. 즉, 성경은 보다 일반

적인 언어로 설명하며 자연은 특별한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코메니우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연의 조직과 조화의 관계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이숙중, 1989: 965).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연과 세계를 배워야하고, 합리적인 것을 배우고, 영원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자연, 정신, 성경은 서로에게 주석과 해석이 되며 인간은 성경과 자연의 두 책 사이를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의 저자이므로 사물에 각인된 진리로 성경의 신비를 알게 한다. 이러한 관련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인 자연의 모든 현상과 성경을 함께 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코메니우스는 설명한다. 우주의 모든 사물 속에서 나타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진리와 모든 점에서 조화를 이룬다. 자연의 모든 사물의 진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거울로 성경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는 하나님, 인간, 자연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인간 교육을 위해 자연의 학교, 인간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제시하였다. 이 학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세 요소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의 저자이고 인간은 자연의 해설자이며,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위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감각, 이성, 믿음의 눈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성경을 함께 탐독하여 사물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의하여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배워야 한다. 물론 이상에서 묘사한 자연은 일차적이며 근본적인 상태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Comenius, 1999: 168). 코메니우스는 언제나 창조, 타락, 회복의 세계관으로 우주만물과 자연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통전적 시각으로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타락 이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인간에게 부패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Comenius, 2005: 39). 그가 백지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코메니우스는 지성, 덕성, 신앙의 씨를 나면서부터 인간 속에 심겨져있다고 보았다. 씨 속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내재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락 이후에 이성이 어두워졌으나 이성은 만물의 충분한 표준과 척도라고 하였다(Comenius, 1910: 42). 이성에 관한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사상은 현대 사실주의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베이컨은 자연사물의 관찰과 탐구와 인간의 많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과학적인 접근과 실

험적인 방법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의 저서를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Ulich, 1968, 159). 코메니우스는 베이컨의 「대혁신」(Instauratio Magna)과 「신기관」(Novum Organum) 등에 영향을 받았다. 전자의 영향에서 그는 정확하고 확고한 기초 위에서 모든 지식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후자의 영향에서 자연과 사물의 정확한 관찰과 탐구를 위하여 귀납적 추리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연적방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명으로 참된 지식과 진리에 도달하려는 시도이다. 베이컨은 자연과 사물의 합리적 관찰방법으로 귀납적 추리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물의 지식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연 사물에 대한 사유와 감각적인 지각력을 통하여 관찰하고 실험하여 귀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비밀과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저서에서 베이컨은 종교적인 진리와 과학적인 진리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창조물은 무생물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되어있다고 하는 기본토대에서 자연과 과학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하여 신학적인 통찰력을 발전시켰다. 코메니우스는 베이컨의 이러한 자연 철학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교육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베이컨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코메니우스는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 세계관에서 근대의 자연사상과 교육의 가능성을 해명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코메니우스의 인간관

코메니우스는 그의 신학에서 인간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이숙중, 1990).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창조사상과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서의 인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 타락, 구속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이해되는 종교적인 존재로 본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물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거울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동료 인간들과 사물을 비추는 관계적인 존재로 본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적인 독특성을 소유한 통전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Comenius, 2001: 62). 하나님의 기쁨인 인간은 완전하고 탁월하게 피조되었다 (Comenius, 1910, 25). 그러나 인간은 베푸신 하나님의 낙원의 풍성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상실로 인하여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Comenius, 2002, 25-27).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구속받은 존재이다 (Comenius, 1999: 96-97). 인간에게 아무 부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신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향유하는 것이 코메니우스의 이상이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란 것을 깨달아 신성의 완전한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Comenius, 1910: 26).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종교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창조사상과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서의 인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중요한 역할은 거울로서의 기능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그대로 모사(模寫)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인간, 자연은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서로를 반사한다 (Comenius, 1999, 129). 인간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자연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본래 세움 받은 위치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물을 다스림과 관리의 책임을 맡았다. 그러므로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소명자로서의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괄적인 감각적 지각능력과 전인적인 독특성을 소유한 통전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정신 혹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우월한 이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인 이성적인 속성과 기능들을 통하여 사물들을 탐구하며 관찰할 수 있는 지성의 빛과 안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인 규범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을 영혼의 눈인 이성을 통하여 우주와 자연의 모든 사물들을 알 수 있는 경이로운 존재로 본다 (Comenius, 1999: 45). 그러므로 해설자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靈)이다. 이러한 독특하고 탁월한 인간에

게는 모든 만물에 대한 관리와 보존의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창조의 성취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성취하기 위하여 범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숙중(1990)도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관한 연구’에서 코메니우스의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상적인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일웅은 ‘범지혜론과 범교육론에 관련된 코메니우스의 인간론(2003b)’에서 인간을 거울 같은 존재로, 소우주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규명하였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그의 저서 「대교수학」 1장에서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 완전하고 탁월한 최고의 존재로 이해한다(Comenius, 1910, 25).

그러므로 코메니우스의 범지혜론과 범교육론에서 제시된 인간론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 타락, 구속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종교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그대로 모사(模寫)하는 관계적 존재, 전인적인 독특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통전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인적인 독특성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동료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소명자로 이해 할 수 있다.

3. 코메니우스의 사회관

Spinka는 코메니우스를 현대교육의 이론가로, 실천가로 알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평화의 사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Comenius, 1944, 10).

코메니우스는 옛 행위 규범과 신앙의 형태가 위협을 받으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널리 퍼져있었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매우 당황하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옛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유산으로 계승해왔던 것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받으면서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만들어 낼 수 없었던 혼란한 시대에, 투쟁 대신에 평화를, 혼란 대신에 질서를 그리고 빛의 길로 모든 것이 통합되기를 원하였다.

코메니우스는 예수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라고 찬송한

것은 평화의 왕이 태어났음을 찬송한 것이며, 예수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면, 인간들도 마땅히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만방에 평화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명예로운 평화의 사도며 대사로서, 같은 사명자이며, 전해야 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며, 인류와 세계는 이 기쁨의 복음을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혜로 창조하셨지만 정함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데 실패하였고(Comenius, 1944, 23-37), 하나님은 인간을 평화의 창조자로 허락하셨지만 세상은 전쟁의 미로 속에 있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교육을 통하여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기를 소망하였다. 그는 30년 전쟁의 불안한 세상의 미로에서, 무가치한 세상의 분주한 일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리고 왜곡된 인간의 갈등 속에서 영원한 광명을 비추어 주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회가 개혁되기를 기대했다. 따라서 코메니우스는 사람들이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참된 지혜와 참된 행복은 올바른 사물 인식과 사물의 근거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그 근원에서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자연스럽게, 손쉽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범지혜와 범교육의 방법으로, 자연이 주는 질서와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이러한 범지혜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무지와, 불확실성과, 무익한 논쟁의 소란과 흥분, 투쟁과 전쟁이 중지되고, 빛과 평화와 종교의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Comenius, 1999, 40).

코메니우스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자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지닌 형태로 자신의 저작들을 요약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류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통합하게 된 그의 작품을 범지학이라고 부른다(Kramarova, 2007).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적인 사상은 전 생애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교육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통일하여 세상을 개혁하고자 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 아래서 그는 「만물의 극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 백과사전적인 작품이 인간세상과 세계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였다(Comenius, 1953, 6). 코메니우스는 단편적인 조각지식으로는 올바른 인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혼돈의 개념에서 분명한 개념을 밝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점유하고 있고,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개념을 완전한 사상과 통합하는 일이라고 하였다(Comenius, 1999, 21). 코메니우스는 종교적인 신앙체험과 창조세계의 다양한 학문을 종합한 그의 이러한 사상을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의 방법으로 만물과의 관계에서 비교, 분석,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에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Comenius, 1995, 33).

코메니우스는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속에서 세계평화체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1667년 브레드(Brede)에서 소집된 국제평화회의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한 평화의 사도라고 자처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Hashemiose, 2007). 그의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의 세계평화정립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코메니우스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이 통일되고 사회가 개혁되도록 노력한 사회개혁사상이었으며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IV.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평가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과 함께 출발한다(Spier, 2007: 25). 개혁주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 세계관은 칼빈(J. Calvin)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공동체에서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헤르만 도예베르트(H. Dooyeweerd)를 비롯한 기독교철학학파에 의해 발전되었고, 오늘날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개혁주의 기독교철학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둔 세계관에 대한 용어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카테고리들 통해 통전적인 세계관을 강조한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어준다(Holmes, 1989: 94).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로 창조된 온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며 온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물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인간의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범우주적이며 장엄하다. 자연이 창조질서에 속한 것처럼 결혼,

국가, 학교 등의 모든 제도 영역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문화, 예술, 교육, 자녀양육, 인간정서, 성 등의 모든 존재와 행위 전체도 마찬가지이다(Wolters, 1992: 37). 하나님은 우주운행의 전개 유형에 끊임없이 인과율을 적용하시며 관여하신다. 제임스 사이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개방 체계(Open system)를 유지하고 계시며, 인과율의 일치체(uniformity)로 운행하신다(Sire, 1995: 35). 개방되었다는 것은 우주가 프로그램화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주의 질서와 규칙은 있으나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범과 명령과 질서 전체를 신칼빈주의자들은 법(law)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예베르트가 법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였다.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신다. 그리고 명령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된다(Wolters, 1992: 27). 이 법에 있어서 자연계는 거의 결정적이지만 인간에게는 규범의 영역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이 부과되었다.

개혁신주의 세계관에서의 창조에 대한 위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은 개혁신주의적 세계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이해,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 하나님의 우주 섭리의 특성은 이제까지 논의한 개혁신주의 세계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창조세계의 질서와 법칙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경의 기능과 권위에 대한 그의 주장들도 개혁신주의 세계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이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의 우주관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주의 세계관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타락이다. 창조가 광범위하고 전 포괄적인 것처럼 타락도 창조계의 한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끼쳤다. 알버트 월터스는 죄의 문제를 구조와 방향에서 설명한다. 구조는 창조의 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 죄는 불순종을 의미하며 반대 방향으로 거슬리는 흐름이었다. 죄는 세상에 삶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변화된 것은 그 흐름의 방향이었다(Wolters, 1992: 69).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삶의 흐름의 방향을 다시 정해주시기 전까지는 만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 타락은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함의 실상을 보여준다. 죄의 영향은 피조계 전체에 미친다. 인간, 비인간, 자연계, 제도, 문

화 등, 피조된 사물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설계하시고 말씀의 선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기뻐하시고 다양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을 주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언약적인 책임이지만 강요되진 않는다. 타락 속에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한다(Middleton & Walsh, 1987: 73). 이러한 요점의 개혁주의 세계관은 죄와 타락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함의 실상을 보여준다.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에서도 죄와 타락은 중심적 요소이며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 아담이 창조주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면 인간은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나, 불순종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Comenius, 2005: 34). 그리고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생긴 타락의 본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에 정치해주신 자리에서 떠나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룩한 지혜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17세기 칼빈주의자로서 그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두 번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구속이다. 개혁주의자들에 따르면 타락 이후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전쟁 상황이다. 이 두 나라의 주권자들 간의 전투를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반립’(antithesis)이라고 불렀다(Kuyper, 1981: 122). 이 두 영적 주권자가 다투고 있는 영토는 창조계의 전 영역이다. 창조가 광범위하고 전 포괄적인 것처럼 타락도 창조계의 한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은 우주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언약을 시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은 타락의 영향권 전체에 미친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을 전 우주적인 회복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보았다. 따라서 구속이란 창조계의 삶에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에 회복의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창조계가 죄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피조물의 삶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성육신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고 믿었다(Comenius, 1887: 44). 17세기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던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회복은 실제의 세상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구조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성을 강조하였고, 비록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낙관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전체의 일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인간과 사회에 내재한 타락의 영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볼 때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은 세계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원과 역사, 비전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개혁신주의적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지성, 덕성, 신앙의 씨가 나면서부터 인간 속에 심겨져 있다고 보았다. 씨 속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내재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록 타락 이후에 이성이 어두워 졌으나 이성은 만물의 충분한 기준과 척도라고 하였다(Comenius, 1910: 42).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체계적인 모든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인간에 의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의 도움으로 인간을 바른 상태로 회복하여 인간 본성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을 수단으로 가능한 많은 것을 알도록 힘씀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Comenius, 2005: 51).

‘할라마(Halama)’는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자연관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평하였다. 할라마는 코메니우스가 이성의 능력을 자연의 씨의 연장에서 대단히 신뢰하였고,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문제점도 잘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코메니우스가 자연의 책, 인간 정신의 책,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조화시키려고 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특히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적인 이성에 가깝게 합류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신앙으로 사람들을 갱신하는 것을 통하여 세계를 갱신하려는 열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코메니우스에게서 발견되는 인간학적 낙관론과 인간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의 죄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평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Halama, 2007: 148). 이러한 점에서 코메니우스의 자연신학, 범지학, 이성에 대한 이해는 근대행동주의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메니우스의 이해를 근대행동주의로 규정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다. 코메니우스는 우주의 모든 사물 속에서 나타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으로 계시된 진리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에 의한 범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을 소개하는 것이다(Comenius, 1986: 8). 창조세계의 모든 우주만물이 모든 점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의 모든 사물의 진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그는 이해하였다. 이러한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자연은 계시가 드러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책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창조의 숨씨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는 또 다른 창조인 성경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성경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를 해석한다. 즉, 성경은 보다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하며, 자연은 특별한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숙중, 1989: 965).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관련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인 자연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쓴 성경과 함께 탐독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가 이해한 인간은 새로운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부패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Comenius, 2005: 39). 따라서 코메니우스가 자연, 인간 정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한 것은 인간의 능력과 자연을 과대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인간의 성화를 위해 전 생애 전 영역에서 매일의 갱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교육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 인간의 양심, 자연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신앙에서 발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이숙중, 1989: 944). 그러므로 코메니우스의 자연관은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스도 회복중심의 전 우주적 통일성에 있어서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근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을 비교하며 평가하기 위해 개혁주의 학자들의 인간관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자.

개혁주의 인간학은 요한 칼빈(John Calvin), 아브라함 카이프(Abraham Kuyper), 헤

르만 도예벨트(Herman Dooyeweerd), 폴런호번(D.H.Th. Vollenho Ven)에 의해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오로지 성경적인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개혁신주의 인간학은 칼빈처럼 오직 성경에 기초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혁을 열망하는 도예벨트와 동료지식자들에 의해 발전된 우주법적 이념(Comonomic Idea)의 기독교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명령과 뜻, 질서, 규범 등을 의미한다(조성국, 2002: 3). 개혁신주의 철학자들은 철저한 선형적, 초월적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 기원, 전인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또한 개혁신주의 세계관에 따라 인간을 창조, 타락, 구속의 세 가지 패턴에 따라 해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잘 묘사하는 용어로 본다. 하나님의 형상의 함의를 개혁신주의 학자들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한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교적인 존재(Homo religious)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전개되는 거대 담론의 드라마를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서 인간 본질의 종교적 뿌리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예배자이다.

둘째,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루터(Luther)나 칼빈(Calvin)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였다(강용원, 1987: 10).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상 만물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동료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으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삶의 중핵에 속한다.

셋째, 인간은 전인적인 독특한 존재이다. 도예베르트는 기독교적 실재론 특히 양상 이론을 근거로 인간에 대한 전인적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양상 이론은 인간의 다면적 차원을 밝혀주는데 기여하였다. 인간만이 모든 양상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하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규범적인 구조를 모두 소유하면서 16가지 양상 모두에 참여하고 있다(김미숙, 2006: 165). 또한 하나님은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해당되

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의 법(law)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 내면적인 사고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운명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조성국, 2002, 7).

이처럼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른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재형상하는 회복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상 만물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통하여 소명에 응답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응답해야 하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거울처럼 원형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반영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사하는 자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거울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코메니우스가 가져온 도구였다. 코메니우스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있어서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간주한 점,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규명한 점, 인간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맥락에서 논의한 점,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논의한 점, 인간이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해한 점 등은 개혁주의 인간론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하나님의 형상개념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최근에 비판하는바 하나님과의 유비적 특성의 존재론적 설명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한계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이해의 한계는 당시대적 한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개혁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한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개념을 거울에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특성을 일찍 해명한 것은 탁월한 통찰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학자들이 영육의 이원론적 기초에서 인간의 육체와 감각기관의 기능과 감각적 인식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감안할 때 코메니우스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통전성을 강조하고, 육체와 감각기관과 오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단히 앞선 설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인간론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비록 이성에 대한 그의 이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성에 대한 그의 입장은 르네

상스 인문주의 및 근대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 개혁주의 인간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현대 개혁주의 인간론은 그가 논의하였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이다.

코메니우스는 그의 교육론인 범지학 사상으로 모든 지식을 종합하고,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가 개혁되어 하나님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사회개혁사상가였으며 교육실천가였다. 그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통일하며 또한 논리적인 분석력과 체계적인 사고로 창조세계의 모든 지식을 종합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쉬뢰어는 코메니우스가 교육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는 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를 간과하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Schroer, 2004: 66-77). 쉬뢰어는 기독교적 교육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한 인간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참된 진리와 지혜와 학문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신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의 모방에서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쉬뢰어의 비평은 코메니우스의 사상이 드러내는 근대사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가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필요한 한 가지」(One Thing Needful)와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The Labyrinth of the World and the Paradise of the Heart)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천국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정일웅, 2006: 51).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본래적인 기능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본연의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인간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인간관과 교육사상이 근대와 현대의 교육학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간과된 채 인간과 이성과 교육에 초점 맞추어져 해석됨으로써 인본주의 교육의 흐름 안에서 이해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가 성경적 관점에서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빛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한 것은 그의 근본적인 세계관의 흐름에서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메니우스의 세계관과 사상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코메니우스는 언제나 성경과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논의의 시발점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였다. 코메니우스는 학문 탐구에 있어서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만물과 자연을 탐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이숙중, 1999: 75). 그러므로 코메니우스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자연사상과 인간교육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변혁하려 하였던 교육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을 개혁주의 세계관적 관점의 교육론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을 개혁주의 세계관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먼저 세계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코메니우스 교육철학이론의 기초인 세계관과 그중의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에 주목하고, 이를 개혁주의 세계관적 관점으로 평가하였다.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개혁주의 세계관의 특성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법과 질서에 대한 확신과 성경의 기능과 권위에 대한 그의 주장들도 개혁주의 세계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코메니우스의 자연관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위에 서 있으나,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근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인간론은 창조, 타락, 구속의 흐름 가운데 종교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통전적인 존재로 개혁주의 인간론과 맥을 같이한다. 코메니우스의 사회관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회관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코메니우스는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자연관과 인간관, 사회관의 소유자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혁하려 하였던 교육신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가 살았던 17세기는 전환기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적 특징들은 세계관의 불확실성, 인식론의 불확실성, 세계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종교적인 불확실성이 극단에 이르는 상황으로 현시대와 유사하다. 오늘날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미세기술) 등의 발달 속에 폐쇄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포스트모던시대에 들어오면서 절대 진리의 부재로 인한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유용성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교육하여 말씀과 복음에 굴복하게 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의 소유자였다. 그는 인간이 부패의 상태에서 개혁의 노력이 없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속 받은 자로서 배은망덕의 증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만물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소유하도록 안목과 시야를 열어주고,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포스트모던시대에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것은 혼돈과 방황의 시대에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올바른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경호 (2007). “기독교교육의 역사. 기독교교육학 개론.” 『생명의 양식』, 69-98.
- 김기숙 (2004). “코메니우스와 기독교교육.” 『코메니우스와 교육』. 한국코메니우스 교육연구소편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14-42.
- 김미숙 (2006).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 대학원.
- 전광식 (1992).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사상연구』. 창간호. 7-43.
- 조성국 (2002). 『기독교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 조성국 (2007).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철학. 기독교교육학 개론.” 『생명의 양식』, 47-67.
- 정일웅 (2003b). “범지혜론과 범교육론에 관련된 코메니우스의 인간론.” 『신학지남』, 275. 9-40.
- 정일웅 (2006). “코메니우스와 그의 교육신학사상의 현대적 의미.” 『신학지남』, 289. 13-63.
- 이숙중 (1990).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70.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758-794.
- 이숙중 ((1999).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숙중 (1989). “코메니우스 자연관과 새 교수법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67. 서울: 현대 신학연구소. 944-983.
- 최진경 (2007).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보헤미아 형제단 교회를 중심으로.” 『코메니우스 연구』. 창간호. 한국-체코 코메니우스 연구소. 87-140.
- Comenius, John Amos. 정일웅 역 (2001). 『어머니학교의 소식』. 서울: 이레서원.
- Comenius, John Amos. 정일웅 역 (2005). 『범교육학』. 수정판. 서울: 도서출판그리심.
- Comenius, John Amos. 정일웅 역 (2002). 『대교수학』. 서울: 창지사.
- Comenius, John Amos. 이숙중 역 (1999). 『빛의 길』. 서울: 여수론.
- Comenius, John Amos. 정일웅 역 (1996). 『범교육학』. 서울: 여수론.
- Comenius, John Amos. 이숙중 역 (1995). 『분석교수학』. 서울: 교육 과학사.
- Comenius, John Amos (1986). Comenius's Pampaedia or Universal Education. trans. by A. M. O. Dobbie, M. A., M. Litt.(Glasgow), F. E. I. S. Buckland Publications Ltd.
- Comenius, John Amos (1984). The School of Infancy.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Ernest M. Elle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Comenius, John Amos (1944). The Angel of Peace. Edited by Miles Safranek, introduced. by Matthew Spinka. New York: Pantheon Book.
- Comenius, John Amos (1910). The Great Didactic of John Amos Comenius. trans. by M. W. Keatinge. Kessinger Publishing.
- Comenius, John Amos (1887). Orbis Pictus of John Amos Comenius. pub. by C. W. Bardeen. New Yark: Syracuse. C. W. Bardeen, Publisher Co.

- Eavey, C. B. (1964).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the Moody Bible Institute.
- Halama, Jindrich (2007). "Comenius Theology and the labyrinths of Education." Comenian Studies. Korea-Czech Comenius Society. 143-159.
- Hashemiose, Michaela (2007). "Comenius' Spirituality and its Reflection in the Czech Literature." Comenian Studies. Korea-Czech Comenius Society. 247-257.
- Holmes, Arthur Frank. 이승구 역 (1989). 『기독교세계관』. 서울: 엠마오.
- Kuyper, Abraham (1981). Christianity as a Life-System. Christian Studies Center.
- Kramarova, Jitka (2007). "Who Teaches Others, Educates Himself: On the Comenian Project of Education." Comenian Studies. Korea-Czech Comenius Society. 305-326.
- Laurie, Simon S. (1895). John Amos Comenius Bishop of the Moravians: His Life and Educational Work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 Middleton, J. Richard and Walsh, Brian J. 황영철 역 (1987).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비전』. I.V.P.
- sadler, J. E. (1969). Comenius.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 Sadler, J. E. (1873). J. A. Comenius and the Concept of Universal Education. barnes & Noble Inc. New York.
- Sire, James W. 김현수 역 (1995). 『기독교세계관과 현대 사상』. I.V.P.
- Spier, J. M. 문석호 역 (2007). 『기독교 철학개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Schroer, Henning (2004). "기독교교육의 미래와 코메니우스." 『코메니우스와 교육』. 코메니우스 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편. 프리칭 아카데미. 66-77.
- Ulich, Robert (1968).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Documents and Interpretations from the Judaeo-Christian Tradi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Limited.
- Willey, Basil (1942). The Seventeenth Century Background. Studies in the Thought of the Age in Relation to Poetry. Chatto & Windus. London.
- Wolters, Albert M.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I.V.P.

ABSTRACT

The Evaluation of Johann Amos Comenius' Worldview using a Reformed Worldview

Kwang-Soon Kim (Dea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Johann Amos Comenius' worldview by viewing it through the lens of the Reformed tradition. For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historical, academic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the 17th century,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Comenius' worldview relating to nature, the humankind, and the society.

Comenius' worldview effectively reveals the unique perspective the Reformed tradition has on creation, the Fall, and redemption. In addition, his conviction that a system and a law co-exist in creation as well as his belief in the ultimate and final authority of the Bible also find their common denominator in the Reformed worldview. While Comenius' view on nature may be said to be the foundation of Reformed theolog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God, the Bible, the reconciliation of the world through Christ and unity, his optimistic understanding of nature and the will of human beings is more modern in thought. His view of humanity, in fact,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experiencing the Fall, and being redeemed, finding the purpose of their existence in religion, relationships, and holism.. Comenius, as a social and educational reformist, tirelessly advocated for the world to be transformed through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had come to the world as a peacekeeper. In a postmodern world that refuses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absolute truth, Comenius' uncompromising yet biblical view on humanity can be utilized as an educational tool for those parents who wish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the word of God.

Key words: reformed theology, worldview, Comenius' worldview, education